

“할일이 많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

미 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지난 11월 독일을 방문했다. 소련과 통일독일 사이에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다. 독일방문 기간중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독일국민들로부터 남다른 환영을 받았다. 조국통일이 고르바초프 대통령 덕분이었다고 많은 독일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그들은 그렇게 표시했다.

방독기간중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공식행사 외에도 사적인 일정을 가졌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헬부트 콜 독일총리의 고향을 방문한 일이었다.

콜총리의 고향인 소도시 다이데스하임에서 그는 특히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같은날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수행하여 독일에 와있던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한스 디트리히 겐서 독일 외무장관의 고향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곳에서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오늘부터 겐서장관의 선거전을 위해 뛰겠다”는 농담까지 해서 주민들을 열광케 만들었다.

새해 벽두에 느닷없이 고르바초프의 독일방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지난해의 시대적 특징의 한 단면들을 돌이켜 보기 위함이다. 1990년은 뭐니뭐니 해도 ‘화해와 만남’의 시기였다. 동과 서가 화해



표 완 수
<시사저널 국제부장>

하고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난 한 해였다. 화해와 만남이 시작된 1990년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1991년의 문턱에 서있는 것이다. 올해에도 화해와 만남은 전세계적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 구체적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1990년은 매우 중요한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



이다.

화해와 만남은 지난해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최근의 예 몇가지만 들어본다. 11월 12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 사령관인 존 깔빈 미군 대장은 소련을 방문해서 소련군 총수와 만났다. 깔빈장군은 소련 육군참모총장 미하일 모이세예프 장군의 안내로 모스크바의 소련 국방부 시설을 둘러보았다. 일주일 후인 11월 19일에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미국 백악관대변인과 소련 크렘린궁대변인이 나란히 서서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의 34개국 정상회의의 참석차 파리를 방문중이던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임시 미·소 정상회담을 갖고 페르시아만상태를 협의한 결과를 알린 피츠워터 백악관대변인과 비탈리 이그나첸코 크렘린궁대변인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런 광경들은 1년전까지만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 밖에도 화해와 만남의 장면은 지난해 세계 도처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동·서독의 통일은 그것의 총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화해와 만남이 마침내 차가운 이념의 장벽을 녹여버리는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는 1990년에 목격했던 것이다.

◀ 독일기를 어깨에 두르고 통독을 기뻐하는 독일 시민



◀ 90년 10월 18일 평양 범민족통일 음악회 개막연회에서 서울 전통 음악 연주단의 황병기 단장이 북쪽 김원균 준비위원장과 함께 각기 한라산 백록담과 백두산 천지에서 길어온 물을 청자 항아리에 따라함치며 통일의 꿈을 한데 모으고 있다.

표단이 평양에 가서 남북통일축구대회를 가졌으며 그후 북쪽 선수들이 서울에 와서 2차 경기를 갖기도 했다. 10월10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남북영화제가 열려 남·북 영화인들이 서로 어울렸으며 10월14일에는 범민족통일음악회가 평양에서 열려 남·북의 음악인들이 화해와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해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시작했다.

이제 새해 아침이 우리앞에 밝아오고 있다. 지난해 많은 것을 시작한 만큼 지금 우리 앞에는 할일이 어느 때보다도 많다. 할일이 많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과 통하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덤비지 않고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 그리고 한가닥 한가닥 매듭을 풀어나가야 할 때다. 다른 나라가 이미 통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도 서둘러 목표에 도달하려고 무리하는 것은 금물이다. 무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남·북한 문제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이같은 화해와 만남의 훈풍은 냉전의 마지막 고도로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남·북한의 총리를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이 9월4일 처음으로 서울에서 마주앉은 것이다. 남·북총리회담은 그후 10월과 12월에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열렸으며 양측 회담대표들은 화해와 협력을 위한 많은 문제들을 논의했다. 아

직은 양측의 이견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남·북총리회담은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총리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 남·북한은 여러 분야에서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협력을 다짐했다. 북경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양쪽은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응원을 펼쳐 보였다. 10월9일에는 남쪽 축구대